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김 백 유

은퇴 목회자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tired Pastors' Social-Welfare

2002年 8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이 교 선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김 백 유

은퇴 목회자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etired Pastors' Social-Welfare

위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2年 8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이 교 선

이교선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5
제 4 절 용어의 정의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정년제 및 은퇴의 개념	8
1. 정년제의 개념과 특징	8
2. 은퇴의 개념	10
3. 은퇴이론	12
4. 은퇴원인과 문제	15
제 2 절 은퇴목회자의 복지문제	18
1. 노인복지의 개념	18
2. 은퇴목회자의 복지사업	22
3. 은퇴목회자의 실상과 복지문제	24
 제 3 장 연구 방법	29
제 1 절 연구 대상	29
제 2 절 조사 도구	29
제 3 절 자료분석	30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31
제 1 절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징	31
제 2 절 은퇴자의 목회관련 특성	32
제 3 절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	34
제 4 절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의식 수준	38
제 5 절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욕구 수준	39
제 6 절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41
제 7 절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42
제 8 절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45
 제 5 장 은퇴 목회자의 복지증진 방안	48
제 1 절 정년제도	48
제 2 절 연금제도	49
제 3 절 건강 및 가족복지서비스	50
제 4 절 장기저리 융자	51
 제 6 장 결 론	54
 참 고 문 헌	58
설 문 지	61
ABSTRACT	66

표 목 차

<표 4-1> 은퇴 목회자의 일반적 특징	31
<표 4-2>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	32
<표 4-3>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1)	34
<표 4-4>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2)	35
<표 4-5>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의식 수준	38
<표 4-6>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욕구 수준	40
<표 4-7>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41
<표 4-8>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43
<표 4-9>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1)	45
<표 4-10>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2)	4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이나 연금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은퇴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이렇게 난감한 은퇴목회자는 한해에 약 200명씩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필연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은퇴목회자의 복지에 관한 교회의 행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¹⁾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의 정년퇴임 후에는 갈림길이 존재한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 했다면 그 나중은 ‘영광’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로목사로서 존중받을 뿐 아니라 노후의 여생은 연금과 퇴직금과 살 곳까지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은 은퇴목사는 그렇지 않다. 젊어서는 개척교회나 농촌교회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느라 편안치 않은 시절을 보냈고, 나이가 들면 갈 곳조차 없어 방황하는 노인으로 전락하는 은퇴목회자가 각 교단을 통틀어 천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은퇴목사는 전자의 편만한 생활을 영위할 위치에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구조에서 은퇴한 목사는 월 1, 2회의 주일에 설교와 일정량의 사례금이나 보너스를 받으며 팀사역의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

1) 조재학, “한국 기독교 은퇴 교역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각 교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p. 2.

리고 평생을 선교사 역할에 전력해 온 목회자들 중에서 대체로 자신의 은퇴 후의 생활대책을 스스로 준비해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의 은퇴 후의 생계대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그 외에도 질병문제, 주택문제, 은퇴 후 예배처소문제, 여가문제 등이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²⁾

1960년 총회연금규정의 제정으로 시행된 총회연금제도는 교계 최초의 연금제도로서 당초에는 총회사회부 연금위원회에서 관장 운영하여 왔으나 90년대에 이르러 가입교역자수와 기금규모의 증가로 연금관리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청됨에 따라 1989년 12월 14일 별도의 법인 성격을 가진 총회연금재단이 설립되었다. 총회연금은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성격은 목회자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구별되며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즉 장애급여에는 단기보험을, 그리고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³⁾

이처럼 총회가 1960년부터 연금제도를 실시해서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70세 이상 된 목회자의 대부분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은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은 노후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퇴 후에 생계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일생을 예배와

2) “담임목사 은퇴 및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성결」, 제304호, 2000. 12.

3) 총회연금재단, www.pension.or.kr.

선교를 위해 사시던 목회자가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장로나 권사는 은퇴하면 은퇴한 교회에서 계속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회자는 원로목사가 되지 못하면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하기에 예배드릴 곳이 큰 문제라고 한다. 또한 은퇴목회자는 평생 교회에서 제공되는 사택에서 생활하기에 은퇴 후에 기거할 주택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대부분의 은퇴 목회자들이 무려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은퇴 목회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서 특별한 소명과 전문성을 가진 은퇴목회자들이 은퇴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용된 일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해결해 나가는 은퇴목회자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은퇴 목회자들을 은퇴하는 교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실정인데 실제로 은퇴 시에 교회에서 은퇴목회자에게 해주는 것이 은퇴 위로금 정도이고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제공하는 교회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은 주택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데 평생을 전도자의 길을 살아 온 그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은퇴하는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생활이 보장되는 현행제도 하에서의 은퇴목회자의 복지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중년기 직장인의 은퇴 후 생활과 복지에 대한 이론

4) 박종일,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예장통합 총청, 충북노회 은퇴목회자 및 공주원로원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4.

과 논문은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일하다가 은퇴하는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노인과 중년기 직장인의 은퇴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은퇴한 목회자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 은퇴 후의 생활실태와 그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또한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들의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목회자에 관한 연구 특히 목회자의 복지향상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의학, 사회복지학, 노인학, 가족학 등의 다양한 지식과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은퇴목회자의 복지문제라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여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 은퇴목회자의 실태를 주요분석 대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은퇴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목회자를 위한 발전적 정책방안, 제시 등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로는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한점 등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 2장에서는 정년제 및 은퇴의 개념, 은퇴자의 복지문제에 대해 이론적 고찰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 조사도구, 자료분석을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으로 은퇴 목회자의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제 5장에서는 실증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목회자의 복지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 파악과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은퇴 목회자의 은퇴 후 복지문제에 대한 교회에 관심과 은퇴 목회자들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대책과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의 조사연구이므로 모든 은퇴목회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목회자에 관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 노인이나, 은퇴한 직장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은퇴목회자에 관해 연구된 기존문헌의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미약하다.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목회자

목회자(Pastor)란 용어는 목자란 뜻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를 목사라 부른다.⁵⁾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라는 용어를 목사와 전도사를 포함해서

5)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4), p. 37.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은퇴목회자

은퇴목회자란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회자를 말한다.⁶⁾

3. 원로목사

원로목사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를 말한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고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총회

General Assembly 장로교회의 최고법정으로 연례적으로 모이는 이 기구는 각 노회의 규모에 비례해 선출된 동수의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다.

5. 노회

장로교의 정체에서 입법과 사법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 노회는 지역

6)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헌법」(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p. 192.

내의 경계 내에 속한 각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다. 노회는 그 관할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며, 목사후보생을 임명하고, 교회를 맡아 돌볼 목사를 취임시키며, 시찰회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활동하며, 동시에 청원서를 지방대회나 전국통회에 회송하는 일과 건의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년제 및 은퇴의 개념

1. 정년제의 개념과 특징

인생주기를 셋으로 나눈다면, 태어나서 25세 전후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 25세에서 장년기 기간동안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는 기간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은퇴하여 한가하게 여생을 보내는 노년기가 그것이다.⁷⁾ 노년기가 되면 정년연한에 의해 본인이 원해서이던 제도에 의해서이던 은퇴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정년의 개념은 우리 나라와 일본 그리고 구미 각 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정년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 나라는 한자로[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령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停年]이 되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본이나 구미의 [定年]은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뜻한다.⁸⁾ 즉 정년은 근로로부터의 은퇴기이며 이에 따른 소득의 결여는 각종 연금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년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시기는

7)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경기도: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p. 208.

8)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예풍출판사, 1991, p. 204.

미군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을 규정한 것은 1963년 국가 공무원 법으로써 제 74조에 직무의 종류별 및 단계별 정년연령을 규정한 것이 최초이다. 우리 나라 공무원의 정년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연령정년제도(노령정년 혹은 은퇴라고 함)라고 한다. 둘째, 공식에 들어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즉 근속정년제가 있다. 셋째,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가 바로 계급 정년제이다.⁹⁾

이러한 정년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문기술직은 정년연령이 높고, 노동직은 낮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정년이 높고 직급이 낮을수록 정년이 낮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정년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의 정년 연령을 살펴보면 현재 직종, 직급에 따라 정년 연령이 다르지만 대체로 58세에서 60세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공무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하급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은 50대에 퇴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이것에 비하면 목회자들의 정년연령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헌법 제4장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자를 목사라 하고 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¹¹⁾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84, pp. 666-673.

10) 박종일,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8, p. 7.

11)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p. 189.

그러나 여기에는 전도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특별히 여목회자(총회에서 97년부터 여목회자 안수를 허락되었으므로 그 후에 목사안수를 받은 분들은 목사정년제에 해당함)들의 교회에서의 정년연령이 없으므로 관례상 60세이면 은퇴를 종용하고 교회에서 종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회를 사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의 대책이 막연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나라도 목회자에 대한 정년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올바른 기준이 만들어져야만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 은퇴의 개념

은퇴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은퇴란 개인이 전임(full-time)보다 적게 일하도록 고용되고 수입이 과거 직업을 통해서 획득한 퇴직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¹²⁾ 또한 은퇴는 사건, 역할, 과정의 세 측면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 사건 또는 다른 과정들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¹³⁾

첫째, 은퇴를 생활주기상의 통과 의례적인 사건으로 간주할 경우, 은퇴는 직업적인 일을 중단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

12) George, L. K., & Maddox, G. L., "Subjective Adap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2, 1977, pp. 456-462.

13) Taylor, C., "Developmental Conceptions and the Retirement Process, in F.M. Carp(ed), Retire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Inc., 1992.

다. 은퇴는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의 전이를 의미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둘째, 은퇴를 역할이란 관점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은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나, 은퇴자의 역할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은퇴로 인한 직업 역할의 상실은 ‘역할 없는 역할’로 묘사되고 이는 행동 지침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역할로서의 은퇴는 은퇴자의 직업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 없이도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시간의 자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은퇴자의 권리와,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적절한 생활 양식을 결정해야 하는 은퇴자의 의미를 뜻한다.¹⁵⁾

셋째, 은퇴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직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으로써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전이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이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새로 취득하게 되는 지위와 역할의 성격에 크게 의존한다.¹⁶⁾

이와 같이 은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은퇴는 생활 주기상에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자 역할 전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생활주기상의 사건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유급의 직업적 지위와 역할에서 물러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 즉 모든 직

14)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13.

15) 지원경, 조병은,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1, pp. 217-240.

16)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22.

업적 경력의 중단이라고 개념화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목회자의 은퇴라 함은 교회에서 나와 목사라는 어떠한 지위와 역할도 없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은퇴이론

은퇴는 은퇴로 인해 어떤 역할 부재의식을 갖게 되고 역할의 상실은 단순한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관련되는 사회, 가족, 집단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파생된다.¹⁷⁾ 또한 은퇴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생주기에서 겪어야 되는 통과의례의 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은퇴 후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이 순조로이 이루어진다면 노인의 은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화되는 은퇴의 과정은 강제적 퇴직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노후의 경제적 보장제도가 확실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은퇴는 불안과 긴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다.¹⁸⁾ 이러한 은퇴의 적응에 대한 이론으로 이탈이론, 사회활동이론, 지속이론을 들 수 있다.

이탈이론은 커밍과 헨리(Cumming & Henry)에 의해 제창된 이론으로 노령화란 노인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상호철회의 과정으로 이탈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탈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였다.¹⁹⁾ 즉, 노년기에는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역할수

17)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7, p. 247.

18) 양애련, “노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관한 태도와 퇴직후 생활계획에 관한 실증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1999, p. 8.

행이나 자아몰입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았으며,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활력의 감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가정적, 사회적 역할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노인이 모든 적극적 활동으로부터 심리적 에너지를 거두어들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노화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이때 사회적 차원에서 이탈이 시작되는 경우를 사회적 이탈이라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주도되는 경우를 개인적 이탈이라 한다.²⁰⁾

활동이론은 레몬, 벤스톤 그리고 피터슨(B. W. Lemon, V. L. Bengstone & J. A. Peterson)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써, 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에도 사회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와 생활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노인에게 있어서 역할상실이 크면 클수록 활동에의 참여는 줄어든다. 그러나 참여활동수준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노인은 그들이 남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역할기대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역할기대를 더 받을수록 노인 자신의 자아개념은 더욱 긍정적이 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²¹⁾ 또한 사회활동이론은 사회은퇴설과는 달리 노년기의 역할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활동수준의 유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 때의 활동유

19) E. Cumming W. Henry,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 1961, p. 34.

20) 김태현, 전게서, p. 250.

21) B. W. Lemon, V. L. Bengstone & J. A. Peterson, "A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 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1972, pp. 515-521.

형은 주로 의무적 활동이었던 사회적 형태가 아니라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의 형태이며, 선택 가능한 활동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역할을 침해당하는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한 타자와의 활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노인들의 은퇴이후의 생활세계는 사회중심에서부터 가정이나 이웃, 사회클럽, 종교단체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며, 중요한 타자도 직장 동료로부터 배우자, 자녀, 친척 혹은 친구로 바뀌게 된다.²²⁾

따라서 사회활동이론에서는 은퇴이후 상실되거나 부정적이 되기 쉬운 노인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때 소외감이 아닌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이 때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유지는 선택적 활동을 통해 역할상실감을 보상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속이론은 가능한 한 개인은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수행했던 역할에서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노년기에는 조심성과 수동성이 증가하므로 새로운 모험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온 환경의 유지나 익숙한 생활양식의 지속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²³⁾ 지속모델의 근본적인 가정은 대다수에게 적합할지 모르나 모든 은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은퇴이론 중 이탈이론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은퇴는 교회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여 개인과 사회에 있어 모두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22) R. Larson, "Thirty of Research of the Subject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978, p. 110.

23) 김태현, 전게서, p.252.

활동이론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은퇴후에도 예배나 목회 또는 종교단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참여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이론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이 과거의 역할이었던 목회일에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퇴로부터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단,s 것이다.

4. 은퇴원인과 문제

모든 인간은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동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정한 연령에 달했을 때 일로부터 물러나게 된다.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 기능과 노동 생산성이 감소된다는 점과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의 지식이나 기술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점, 인구과다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은퇴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일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 동시에 생활의 일과를 줌으로 해서 인간의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준다. 따라서 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감의 핵심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며, 생활의 경험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²⁴⁾ 이처럼 일은 인간에게 있어 생활의 구조와 의미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로부터의

24) 최신태, 「노년사회학」, 서울: 경문사, 1985, p. 120.

이탈, 즉 은퇴는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에서 부양인구로의 전환보다도 더 큰 존재의미의 상실을 유발하며,²⁵⁾ 은퇴를 앞둔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은퇴는 경제적 수입을 위한 일에서 해방되고 노후를 즐기며 생애에 꼭 하고 싶은 시간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은퇴를 맞이하는 당사자가 아무런 노후준비나 소득보장 대책 없이 직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만큼 은퇴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소득의 상실,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와 소외, 고독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으로는 은퇴는 성숙한 인력자원의 시장과 피 부양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²⁶⁾ 이러한 은퇴의 문제에 대해 Burgess는 “은퇴란 더 이상 성취해야 할 아무 중요한 기능도 없게 만들며 인간을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은퇴의 역할이란 무 역할의 역할이다”라고 말한다.²⁷⁾ 또한 현대산업 사회에서의 은퇴제도에 관해서 Williamson은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은퇴제도란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더 제공하기 위함과 아울러 노년자들에게는 현대산업사회에서의 불필요함과 무능력을 은폐시키려고 만든 제도이다”라고 말한다.²⁸⁾

이처럼 은퇴하는 것은 곧 고용관계 또는 취업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

25) 이광규, “정년자의 생활복지”, 「사업사회와 정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p. 23.

26)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노동」, 이우출판사, 1985, p. 102.

27) E. Burgess, “Aging in Western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20.

28) J. B. Williamson, L. Evans & Munley, “Work, Retirement and Leisure”, Aging and Society, 1980, pp. 148-169.

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본인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은퇴하는 임의은퇴, 둘째, 연금 수급연한이 되어 퇴직하게 되는 자연은퇴, 셋째,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정년퇴직 또는 강제은퇴이다.²⁹⁾ 이 중에서 강제은퇴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은퇴자들의 은퇴이후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및 조직의 효율성 향상 노력을 위한 기업경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중심사고보다는 인구의 고령화가 중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퇴자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복지측면에서 심각한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목회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목회자들의 은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노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29 김태현, 전게서, p. 235.

제 2 절 은퇴목회자의 복지문제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므로 노인복지라 함은 노령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사회복지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이라 하겠다.

이러한 복지를 사회적 또는 공공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에 이를 사회복지 또는 공공복지라고 칭한다. 사회복지와 공공복지는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공공복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조세에 기초한 사회 작용만을 뜻할 때도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라는 사회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통하여 해결, 즉, 조세에 의한 해결을 공공복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에 따라 노인정책이 시행되었고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노인정책에 필요한 유력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³⁰⁾

Kaplan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생활상의 욕구로써 사회가 다루고 처리해야 할 일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신의학 적 서비스, 적절한 주거마련, 정신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 만성병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을 갖는 기회,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³¹⁾

30) 김상주, 「노인복지의 체계적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5, pp. 75-79.

31) 김상주, 상계서, p. 84. 재인용

Shenfield는 이를 Social Policy for Older People 이라고 하여 그 내용을 직업대책, 연금대책, 주택대책, 의료서비스, 수용보호 및 거택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³²⁾

이외에도 노인들이 보다 활동적인 복지생활을 위해 여가생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가란 노동으로부터의 신체적 해방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휴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³³⁾ 여가는 노동의 반대개념이며 강제성 및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행위이고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 휴식 및 즐거움 등과 관련이 있다.³⁴⁾ 여가란 원래 일을 하다가 쉬게 되는 틈으로 정의되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시간의 여유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노인들의 경우와는 상대적 개념이다.³⁵⁾ 그러므로 은퇴한 노인들에게 부여된 여가는 재생산의 수단 또는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의 여가의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형이 다르다.

은퇴목회자의 경우는 여가투성이의 생활을 해야하는 입장임으로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라기 보다는 무료함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것은 은퇴목회자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³⁶⁾ 따라서 은퇴목회자의 경우는 여가로 인해서 제기되는 고통과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은퇴목회자 여가선용의 내용은 노령기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순

32) 김상주, 상계서, p.85. 재인용

33) 최순남, 「현대노인 복지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p. 232.

34) 박재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학술계간지 97년 춘계호, 서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p. 11.

35)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1, p. 191.

36) 박재간, 전개논문, p. 12.

수한 취미, 오락활동 또는 건강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직접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기인하는 사회적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은퇴목회자들은 그 대부분이 전통적인 가족제도하에서 자녀들에 의하여 동거 부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할 상실에서 오는 남아도는 여가시간으로 인한 무료함과 고독감 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은퇴목회자들은 대체로 집안 내에서 자신이 혼자 소일하면서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가의 문제는 은퇴목회자들도 일반 노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논의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반 노인들은 일반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등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어울리지만 은퇴목회자는 일반 노인정에서의 음주, 흡연, 화투 등의 오락을 하는 노인들과 어울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³⁷⁾ 그러므로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차별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은퇴목회자들의 여가의 형태 또는 여가의 유형은 각자의 성격이나 과거의 생활습관에 따라 각기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노인의 여가는 단독충실형, 가족충실형, 우인교류형, 독서형, 사회참여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³⁸⁾

단독충실형의 은퇴목회자는 미술이나 음악감상, 서예, 사진촬영, 우표수집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우인교류형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충당한다. 독서형은 서재에서 계속 독서를 하거나 문집을 정리하고 신문잡지 기사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모아 스크랩도 하며 새로운 문헌을 수집하는 일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가족충실형은 정원손질, 가옥의 미화작업, 살림용구를 수시로 옮겨 놓는 일, 가족동반의 의식 또는 가족단위의 소풍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사회참여형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동

37) 박종일, 전제논문, p. 27-28.

38) 박재간,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 141.

창회, 향우회, 친목회 그리고 때로는 종교단체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 은퇴목회자의 여가 유형은 경제력 또는 학력수준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은 단독충실, 우인교류, 사회참여 등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저학년 은퇴목회자들은 독서를 하거나 사회참여 등에 취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³⁹⁾ 또한 노후에 어떻게 여가를 보내느냐 하는 것은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은퇴 후 목회자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은퇴목회자들 자신들의 행복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은퇴목회자의 문제뿐 아니라 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고소득, 고학력과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자식이 있으나 자식의 효심에 의존하지 않고 취미, 운동, 여행 등으로 부부만의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일명 톱크족의 등장은 새로운 노인여가생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톱크족의 출현은 우리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소득, 고학력과 건강을 지닌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은퇴목회자들은 이들과 달리, 미비한 복지대책에 의해 더욱 사회참여나 정당단체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듯 노인복지와 노인정책은 은퇴목회자의 복지와 복지정책에 직결되는 것으로 은퇴목회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복지정책의 시급한 개선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39) 상계서. p.142

2. 은퇴목회자의 복지사업

은퇴 목회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은퇴목회자가 정년제도에 따라 은퇴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정년의 시기는 교단별로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65세에서 70세까지를 정년으로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통계수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만큼 은퇴목회자들의 노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대다수가 어떤 산골자기에서, 어떤 양노원에서, 혹은 작은 방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이러한 은퇴목회자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유일한 복지사업은 연금으로써, 1973년 제 30회 총회에서 교역자 연금법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 법인화 되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역자 연금재단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⁴¹⁾ 그러나 목회자들의 무관심과 수많은 미가입 목회자들 그리고 연금 미납액 등으로 인하여 기금조성과 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이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때문에 목회자들의 연금납부율도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과는 반대로 은퇴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은퇴목회자는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70%정도가 교단 연금으로 생활을 할 정도라며 연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때문에 연금에 대한 목회자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40) 조재학, “한국기독교 은퇴교단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 각 교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p. 15.

41) [http:// www. kencnews.co.kr/news/2000/266](http://www.kencnews.co.kr/news/2000/266).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각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던 연금재단이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연금협의회를 조직해 목회자 노후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교단의 연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출자, 공동으로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등 저금리 시대의 연금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독교연금협의회는 이와 함께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각 교단 연금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수익창출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증권투자회사 전문가를 초청, 기금운용에 관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연금협의회는 예장통합을 포함, 기감, 기장, 예장고신, 예장합동, 예성, 기성, 기하성 등 8개 교단 연금관계자들의 협의체로 교단 연금기관과의 연금 관련 정보에 대한 상호교류와 기금 증식을 위한 공동투자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발족의 가장 큰 동기는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는 최근의 저금리 추세”라고 말하고 “현재의 금리로는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각 교단의 연금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교단과의 연합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교단별 연금 규모는 통합 720억원을 비롯해 기감 156억원, 기장 120억원, 합동 100억원 등으로 8개 교단 총 연금 자산은 1200억원에 이른다.

협의회는 연금재단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연금업무 활성화 대책 마련, 목회자의 일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동 대처,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⁴²⁾

3. 은퇴목회자의 실상과 복지문제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전도사로 나선 분들은 가난과 부딪혔고 일제의 핍박을 함께 받아야 했다. 또한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향과 목양지의 상실로 받은 고난은 오늘의 70세에서 90세에 걸친 대부분의 목회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게 하였고 은퇴 후에도 노후의 생활 문제와 아울러 목회자로서 품격유지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총회가 연금제도를 실시해서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70세 이상 된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연금제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은퇴를 하였기에 대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은 노후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⁴²⁾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일생을 예배와 선교를 위해 살던 목회자가 예배를 드릴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은퇴목회자가 출석할 교회가 없는 이유는 시무목회자가 은퇴목회자의 예배 참석에 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은퇴목회자의 예배처소에 대한 문제가 실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평생을 목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기거할 주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영세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한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생활고와 더불어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은퇴목회자 수용 시설인 공주원로원과 안양원로원이

42) <http://news.naver.com/news>, 국민일보, 2001년 08월 10일.

43) 전군명, “은퇴목사 노후생활보장”, 「기독교공보」, 1997, p. 34.

있는데 이곳은 은퇴한 목회자가운데 無依無托한 목회자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자녀가 있는 은퇴목회자라 할지라도 일정액의 입소료를 내고 입소할 수 있다. 또한 은퇴한 여목회자들을 위한 여교역자 안식관이 있지만 그곳의 입소자격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본 교단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은퇴 여목회자 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입주금으로 1백만원과 월 최저생활비 6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은퇴목회자 수에 비해 수용시설이 부족한 입소비용도 영세한 교회나 목회자가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된다.⁴⁴⁾

은퇴목회자는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유지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목사가 70세 정년으로 교회를 사임할 때 동일 교회를 20년 이상 시무했을 경우에 원로목사로서 노후생활을 위한 교회의 배려가 있어 생활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동일한 20년 이상 시무하지 못하고 은퇴한 목회자가 총회 연금까지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이 곤란하여 노후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게 된다. 현실상 일반목회자는 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성장한 자녀들이 은퇴한 목회자 부모를 봉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당한 일이지만 이제까지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생활하던 목회자가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해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⁴⁵⁾

이외에도 여가활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노인들이나 은퇴목회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입안도 없는 것으로 특히

44) 박종일,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8, p. 14-15.

45) 이형규, 「한국교회의 허와 실」, 서울: 쿤란출판사. 1992, p. 59.

목회자들은 직업상의 특성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가활동은 노인이나 은퇴목회자들에게 은퇴 후 많은 활력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⁴⁶⁾

첫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몰두하는 이점.

둘째, 만족감과 성취감.

셋째, 생산적인 일 혹은 즐거운 일에 대한 참여에서 오는 자부심.

넷째, 지식과 잠재적인 기술의 확장.

이와 같은 여가활동의 이점은 은퇴 후 목회자들이나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한다.⁴⁷⁾

첫째,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려는 욕구.

둘째, 자신이 지역사회의 가치 있는 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셋째,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은 욕구.

넷째, 특정한 업적이나 성과를 올려 보려는 욕구.

다섯째,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여섯째,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자극을 받아 보려는 욕구.

일곱째, 가족관계를 원만히 가지려는 욕구.

여덟째, 종교적인 신앙을 포함한 정신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이러한 욕구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은퇴목회자와 노인들의 대부분은 여가활동을 텔레비전과 함께 하루생활을 시작하고 텔레비전

46) 김태현, 이인수, 「실버산업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6, p. 59.

47) 최순남, 「현대노인 복지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p. 235.

과 함께 하루를 마감할 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한다.

이러한 원인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여행 또는 노인학교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집 근처의 노인정에 나가서 상호간의 친목과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장기, 바둑, 화투 등을 하면서 하루를 소일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나 편리함 때문에 찾는 노인정이 시설의 규모나 환경의 열악, 전문가의 부재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의 빈곤, 운영재정의 열악 등은 은퇴목회자나 노인의 기대와 욕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은퇴목회자나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 하다. 둘째, 열악한 시설을 안락한 여가 장소가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일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은퇴목회자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은퇴목회자나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⁴⁸⁾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은퇴목회자 자신들도 노후에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여가기능을 젊은 시절부터 익혀야 한다. 그 이유는 여가활동이 어떠한 기술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즐겁고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익혀진 기술이 필요하다. 즉, 미술, 음악, 서예, 공작 등 예능과 관련된 기능이나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테니스, 탁구, 골프, 게이트볼, 배드민턴, 낚시 등 그리고 토론회 회의참여 등 지적인 지식이 필요한 활동 등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어

48) 최순남, 상계서, p. 257.

는 정도 기초가 다져져야 자신감도 있고 즐거운 여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면에서 은퇴목회자들은 건강과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은퇴목회자는 특별한 소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퇴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용된 일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모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의미의 여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주택문제, 건강문제, 예배처소문제, 여가활동문제와 같은 복지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으로 은퇴 목회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9) 박은규, “제 2인생의 바른 생활태도”, 월간목회, 10월호, 1994, p. 341.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은퇴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150부를 배부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80부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 74부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제 2 절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은퇴목회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특성변인으로 성별, 연령, 목회경력, 직분, 사역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은퇴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은퇴 후 생활 대책마련, 교회에서의 노후대책, 은퇴 후 활동, 은퇴 후 당면한 문제, 이상적인 목회은퇴 연령, 주거문제, 은퇴 후 수입, 수입사용 용도, 여교역자에 대한 대책 문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은퇴목회자의 복지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후생활대책 마련 욕구, 은퇴 후 활동 욕구, 프로그램 참여 욕구, 복지조건개선 욕구, 은퇴자를

위한 대책마련욕구, 은퇴 후 여가활용욕구, 은퇴 후 수입만족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 3 절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A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은퇴목회자의 개인특성변수와 목회관련 변수에 따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검증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제 1 절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징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징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은퇴 목회자의 일반적 특징

변 수		집 단	N(%)
인 구 통 계 학 적 변 수	성별	남자	71(95.95)
		여자	3(4.05)
	연령	65-70	10(13.15)
		71-75	28(37.84)
		76-80	19(25.68)
		81-85	15(20.27)
		86세이상	2(2.70)
	최종학력	초등학교	2(2.78)
		중학교	3(4.17)
		고등학교	0(0.0)
		전문대	0(0.0)
		대학교	24(33.33)
		대학원 이상	43(59.72)
	합계		74(100.0)

성별에서는 은퇴목회자의 대부분이 95.95%로 남자였으며, 연령에서는 71-75세 사이에 연령이 3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76-80세, 65-70

세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이상이 93.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이하가 6.95%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회자들의 학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은퇴자의 목회관련 특성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은 목회경력, 은퇴교회 소재지, 은퇴시 직분, 소속신분, 은퇴연령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

변 수		집 단	N(%)
목회 관련 변 수	목회경력	20년 이하	11(14.86)
		21-30년	14(18.92)
		31-40년	14(18.92)
		41년 이상	35(47.30)
	은퇴교회 소재지	대도시	35(47.30)
		중소도시	16(21.62)
		군, 읍, 면	11(14.86)
		농어촌	12(16.22)
	은퇴시 직분	목사	71(95.95)
		전도사	3(4.05)
	소속 신분	원로 목사	32(43.24)
		공로목사	5(6.76)
		일반은퇴목사	34(45.95)
		기타(전도사)	3(4.05)
	은퇴연령	60세 이하	4(5.41)
		61-65세	6(8.11)
		66-70세	42(56.76)
		71세 이상	22(29.73)
합계		74(100.0)	

목회경력에서는 41년 이상이 47.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1-30년, 31-40년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의 목회경력이 4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은퇴교회 소재지에서는 대도시가 47.30%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은퇴교회 소재지는 대부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 직분에서는 목사가 95.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도사는 4.05%에 불과하였다.

소속신분에서는 일반은퇴목사가 45.95%로 과반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원로목사도 43.2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소속신분은 대부분이 일반은퇴목사나 원로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에서는 66-70세 사이가 56.7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71세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보다 은퇴연령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은 생계대책 마련, 은퇴교회의 복지조건, 은퇴 후 주요활동, 은퇴 후 당면한 문제, 거취형태, 경제적 원조형태, 경제적 원조의 사용용도, 비원로목사의 예배처소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 <표 4-4>와 같다.

<표 4-3>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1)

변 수		집 단	N(%)
은 퇴 후 목 회 자 의 생 활 실 태	생계대책 마련	총회연금	15(20.27)
		일반적금이나 보험	2(2.70)
		교회에서의 은급적금	20(27.03)
		전혀 없다	23(31.08)
		기타(국민연금)	14(18.92)
	은퇴교회의 복지조건	주택공급	12(16.22)
		생활비 지원	12(16.22)
		설교 및 사회봉사	2(2.70)
		무관심	34(45.95)
	은퇴 후 주요활동	기타	14(18.92)
		교회나 기관에서 활동	18(24.32)
		시설이나 집에서 요양	40(54.05)
		여행 및 취미생활	2(2.70)
		자서전 및 회고록 집필	2(2.70)
	은퇴 후 당면한 문제	자원봉사	12(16.22)
		경제문제	26(38.24)
예배처소 문제		4(5.88)	
주거문제		0(0.0)	
여가활동		5(7.35)	
건강문제		25(36.76)	
	기타	8(11.76)	
합계		74(100.0)	

<표 4-4>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수준(2)

변 수		집 단	N(%)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거취형태	총회에서 운영하는 원로원 일반 유료 양로원 기도원이나 수련원 아파트나 연립 농촌개인주택 도시개인주택 기타	0(0.0) 0(0.0) 2(2.70) 36(48.65) 6(8.11) 20(27.03) 10(13.51)
	경제적 원조형태	총회연금 은퇴교회 후원 노회의 지원 자녀의 원조 기타	10(13.151) 14(18.92) 0(0.0) 38(51.35) 12(16.22)
	경제적 원조의 사용용도	주택관리 및 주식비 병원비 헌금 교통비 도서비 기타	31(44.29) 14(20.0) 9(12.86) 8(11.43) 2(2.86) 6(8.57)
	비원로목사의 예배처소	은퇴한 교회에 출석 출석할 교회가 없음 여러곳을 다니며 출석 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 기타(은목교회)	10(13.51) 25(33.78) 12(16.22) 23(31.08) 4(5.41)
합계		74(100.0)	

생계대책 마련에서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1.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총회연금, 교회에서의 은급적금,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주로 국민연금이나 개인적인 적금 등으로 나타났으나, 은퇴 후 목회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교회의 복지조건에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45.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택공급이나 생활비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은퇴목회자들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시설이나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가 54.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교회나 기관에서의 활동, 자원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은퇴 목회자들은 주로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나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당면한 문제에서는 경제문제가 38.24%, 건강문제가 36.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도 예배처소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취형태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이 48.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도시개인주택, 기타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나 교회관련 기관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원조형태에서는 자녀의 원조가 51.3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은퇴교회 후원, 총회연금의 순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자녀의 원조와 같은 개인차원의 지원을 통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원조의 사용용도에서는 대부분이 주택관리 및 주식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병원비, 현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후 목회자들은 경제적 원조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비원로목사의 예배처소 문제에서는 출석할 교회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3.7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한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경우, 여러곳을 다니면 출석하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은퇴한 목사들을 위한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은 예배처소 문제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의식 수준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의식 수준은 목회자 은퇴 적정연령, 은퇴 목회자를 위한 선호 프로그램, 전도사와 여교역자들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한 의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의식 수준

변 수		집 단	N(%)
은 퇴 후	목회자 은퇴 적정 연령	60세	4(5.41)
		65세	10(13.51)
		70세	28(37.84)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32(43.24)
목 회 자 의	은퇴 목회자를 위한 선호 프로그램	여행	4(5.41)
		자원봉사	28(37.84)
		건강관리	24(32.43)
		신학관련 재교육	14(18.92)
		기타	4(5.41)
복 지 의 식	전도사와 여교역자들을 위한 대책방안 의식	대책이 마련이 시급	35(48.61)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식	6(8.33)
		관심없음	4(5.56)
		은퇴한 교회에서 노후대책 마련	27(37.50)
합계		74(100.0)	

은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은퇴 적정연령에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70세로 나타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계속 목회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은퇴 후의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선호 프로그램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프로

그램이 3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건강관리, 신학관련 재교육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건강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우도 32.43%로 높게 나타나, 은퇴 후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도사와 여교역자들을 위한 대책방안의식에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8.61%로 과반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은퇴한 교회에서 노후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7.50%로 나타나, 전도사와 여교역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욕구 수준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욕구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0가지 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욕구 수준

복지욕구 항목	평균(표준편차)
1. 은퇴 전 은퇴 후 대책마련욕구	2.15(1.29)
2. 은퇴 후 자원봉사욕구	4.09(0.84)
3. 은퇴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사욕구	4.0(0.83)
4. 총회 운영 은퇴목회자를 위한 원로원 등록욕구	2.87(1.34)
5. 은퇴목회자를 위한 총회나 노회의 복지조건 개선욕구	4.42(0.71)
6. 은퇴목회자를 위한 대책마련 전담기구 마련욕구	4.45(0.68)
7. 은퇴후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같은 여가활동 참여욕구	1.87(1.19)
8. 은퇴 후 가족과의 동거욕구	2.73(1.51)
9. 은퇴 후 가족간의 관계만족	2.83(1.20)
10. 은퇴 후 생화비나 용돈에 대한 경제적 만족	3.29(0.23)

복지욕구 중에서 높은 욕구수준을 보인 항목은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전담기구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욕구가 5점 만점에 평균 4.45로 가장 높았으며, 은퇴목회자를 위한 총회나 노회의 복지조건 개선욕구는 평균 4.42, 은퇴 후 자원봉사 욕구는 평균 4.09, 은퇴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사 욕구는 평균 4.0으로 나타나, 이들 4항목에 대해 평균 4.0이상으로 높은 욕구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은퇴 후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같은 여가활동에 참여 욕구는 5점 만점에 평균 1.87로 낮은 욕구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은퇴 전 은퇴 후 대책을 마련에 대한 욕구는 평균 2.15, 은퇴 후 가족과의 동거욕구는 평균 2.73, 은퇴 후 가족간의 관계만족은 평균 2.83으로 나타나, 이들 세 항

목들에 대해 평균 3.0이하로 낮은 욕구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절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데 Duncan's Multiple Range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7>와 같다.

<표 4-7>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변 수		집 단	복지욕구	
			M	D ^{a)}
인 구 통 계 학 적 변 수	성별	남자	3.39	
		여자	3.2	
		t값	2.19*	
	연령	65-70	3.02	C
		71-75	3.25	BC
		76-80	3.24	BC
		81-85	3.45	B
		86세이상	4.10	A
		F비	6.55***	
	최종학력	초등학교	3.70	
		중학교	3.20	
		대학교	3.33	
		대학원 이상	3.27	
		F비	1.08	

*P<.05 **P<.01 ***P<.001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복지욕구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P<.05$)과 연령($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5-70세인 집단, 81-85세인 집단, 86세 이상인 집단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65-70세인 집단보다는 81-85세인 집단이, 81-85세인 집단보다는 86세 이상인 집단이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절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데 Duncan's Multiple Range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8>와 같다.

<표 4-8>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변 수		집 단	복지욕구	
			M	D ^{a)}
목회관련 변수	목회경력	20년 이하	3.33	
		21-30년	3.22	
		31-40년	3.31	
		41년 이상	3.30	
		F비	0.20	
	은퇴교회 소재지	대도시	3.19	B
		중소도시	3.30	A
		군, 읍, 면	3.26	AB
		농어촌	3.30	AB
		F비	3.27*	
	은퇴시 직분	목사	3.39	
		전도사	3.2	
		t값	2.19*	
	소속 신분	원로 목사	3.34	
		공로목사	3.20	
		일반은퇴목사	3.27	
		기타(전도사)	3.20	
		F비	0.39	
	은퇴연령	60세 이하	2.85	B
		61-65세	3.40	A
		66-70세	3.34	A
		71세 이상	3.29	A
		F비	2.70*	

*P<.05 **P<.01 ***P<.001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복지욕구는 목회관련 변수 중, 은퇴교회 소재지(P<.05), 은퇴시 직분(P<.05), 은퇴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교회 소재지는 중소도시인 집단과 대도시인 두 집단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는 높은 복지욕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 직분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도사인 집단보다는 목사인 집단이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에서는 61세 이상인 집단과 60세 이하인 집단 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60세 이하인 집단보다는 61세 이상인 집단이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8 절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데 Duncan's Multiple Range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9>, <표4-10>와 같다.

<표 4-9>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1)

변 수		집 단	복지욕구	
			M	D ^{a)}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실태	생계대책 마련	총회연금	3.30	
		일반적금이나 보험	3.40	
		교회에서의 은금적금	3.27	
		전혀 없다	3.34	
		기타(국민연금)	3.20	
		F비	0.33	
	은퇴교회의 복지조건	주택공급	3.20	B
		생활비 지원	3.26	B
		설교 및 사회봉사	3.70	A
		무관심	3.34	AB
		기타	3.20	B
		F비	1.26*	
	은퇴 후 주요활동	교회나 기관에서 활동	3.26	
		시설이나 집에서 요양	3.35	
		여행 및 취미생활	3.40	
		자서전 및 회고록 집필	3.29	
		자원봉사	3.16	
		F비	0.86	
	은퇴 후 당면한 문제	경제문제	3.26	
		예배처소 문제	3.40	
		여가활동	3.33	
		건강문제	3.36	
		기타	3.30	
		F비	0.26	

*P<.05 **P<.01 ***P<.001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10>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의 차이(2)

변 수		집 단	복지욕구	
			M	D ^{a)}
은 퇴 후 목 회 자 의 생 활 실 태	거취형태	기도원이나 수련원	3.20	BC
		아파트나 연립	3.40	AB
		농촌개인주택	3.75	A
		도시개인주택	3.14	BC
		기타	3.0	C
		F비	6.97***	
	경제적 원조형태	총회연금	3.23	
		은퇴교회 후원	3.28	
		자녀의 원조	3.36	
		기타	3.07	
		F비	1.61	
	경제적 원조의 사용용도	주택관리 및 주식비	3.34	
		병원비	3.31	
		헌금	3.13	
		교통비	3.16	
		기타	3.46	
		F비	1.21	
	비원로목사의 예배처소	은퇴한 교회에 출석	3.27	
		출석할 교회가 없음	3.52	
		여러곳을 다니며 출석	3.34	
		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	3.25	
		기타(은목교회)	3.0	
		F비	0.59	

*P<.05 **P<.01 ***P<.001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복지욕구는 생활실태 중, 은퇴교회의 복지조건(P<.05), 거취형태(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교회의 복지조건은 주택공급, 생활비지원, 기타인 집단과 설교 및 사회봉사인 집단 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교 및 사회봉사인

집단이 주택공급과 생활비지원, 기타인 집단보다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취형태는 농촌개인주택인 집단과 기타인 집단 사이에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농촌 개인주택인 집단이 기타인 집단보다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은퇴 목회자의 복지증진 방안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퇴목회자의 복지증진방안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정년제도

본 연구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의 은퇴적정 연령에 대한 의식에서 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나이가 들어 오랜 수양을 거쳐 더욱 성숙되는 직업으로써 오랜 경력의 목회자들은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정년제도에 의해 일정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은퇴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년제도에 대한 은퇴목회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회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원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목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총회나 노회에서 목회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정년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은퇴목회자들은 교회일선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특별한 소명과 전문성을 가진 귀중한 자원이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연구하고 교회와 사

회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여가활용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인력 은행 등을 만들어 은퇴목회자의 여가를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총회사회부에서 은퇴성직자 봉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 2 절 연금제도

본 연구결과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은퇴한 목회자들 대부분이 은퇴 후의 생활 대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함으로써 은퇴 후 생계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예배처문제, 여가문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은퇴목회자들의 노후대책 문제를 은퇴목회자 자신의 책임과 개교회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당교회에서는 주택이나 생계비지급 등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현직 목회자나 교인들이 인식하고 교회에서의 은퇴목회자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복지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실시해서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70세 이상이 된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연금에 가입

하지 못하고 은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목회자들은 노후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가입을 위한 강제규정을 강화해서 목회자의 은퇴 후 생계대책을 보장해 주며 교회에서의 부담금을 교회 경상비의 몇 %로 일률적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에 강제성을 띠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은퇴목회자들이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원조를 대부분 자녀로부터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대책마련 전담기구 마련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은퇴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은퇴목회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퇴목회자들의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것은 연금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은퇴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총회나 노회에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목회자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들로써 정부차원에서 또 다른 경제적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건강 및 가족복지서비스

본 연구결과에서 은퇴목회자들이 당면한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건강문제이며 은퇴목회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목회자들이 건강관리상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하는 건강관리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목회자들이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총회연금재단에서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총회차원의 목회자 전문병원이나 지정병원을 만들어 목회자의 의료복지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들을 은퇴 후에도 부양해야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은퇴 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로 인해 이중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이나 재정적 지원금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총회차원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 가족들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같은 교육비 면제나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4 절 장기저리 용자

본 연구결과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마련한 개인주택에서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집단생활보다는 개인생활을 선호한다는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은퇴 후에 공동으로 생활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원로원이 무료나 실비로 운영되어야만 농촌이나 어촌 그리고 영세한 미자립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목회자들과 여교역자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주로 조용한 개인주택을 선호하므로 집단수용시설과 함께 개인주택형 원로원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은퇴목회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택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며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주택문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해결 방안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들 수 있다. 목회자들을 위해 보다 싼 이자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은퇴목회자들보다는 중소도시나 지방의 은퇴목회자들의 복지욕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즉 농어촌 지역의 은퇴 목회자들의 복지대책이 더 미비한 것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부차원에서의 특성화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시설 및 생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목회자의 복지를 위한 종교적인 연구센타가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다. 물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회나 노회의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은퇴목회자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노회나 총회 등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나 총회에서는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하는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은퇴목회자나 그들의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오늘의 교회가 교회 성장과 선교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일선에서 은퇴한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은퇴를 앞둔 목회자를 교회들이 기피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노후가 더욱 비참하다.

또한, 은퇴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문제는 은퇴목회자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은퇴목회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교회와 가족의 문제인 동시에 노회나 총회가 당면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은퇴목회자의 은퇴 후 복지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은퇴목회자들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대책과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목회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71-75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대부분이 대학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들이 다른 직종에서보다 고학력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퇴목회자들의 목회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목회경력은 41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은퇴교회 소재지는 대도시가 대부분이었으며, 은퇴시 직분은 거의 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신분은 원로목사와 일반은퇴목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은퇴연령은 과반수 이상이 66-70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 비록 은퇴연령은 높게 나타났으나 목회라는 직종상의

특징을 감안할 때 그리 높은 은퇴연령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은퇴목회자들의 생활실태수준을 살펴보면, 생계대책마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교회의 복지대책도 대부분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주요활동은 시설이나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와 건강문제라고 응답하였다. 거취형태는 대부분인 개인적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원조에서도 대부분이 자녀의 원조로 생활비와 주식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원로목사의 예배처소 문제에서도 출석할 교회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에서 보면 목회자들은 은퇴 후 복지적인 문제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금제도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은퇴목회자들의 복지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은퇴적정 연령은 현재 은퇴연령보다 높은 70세 이상이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사나 여교역자들을 위한 대책 방안의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책마련과 노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 은퇴연령이 더 높게 측정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은퇴 후 목회자의 복지욕구 수준을 살펴보면, 은퇴목회자를 위한 노회나 총회의 복지조건 개선욕구와 전담기구 마련욕구, 자원봉사참여욕구,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사욕구에 대한 높은 욕구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은퇴목회자들은 다양한 봉사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섯째,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은퇴목회자일수록 복지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많은 복지욕구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은퇴목회자의 목회관련 특성에 따른 복지욕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은퇴교회 소재지와 은퇴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은퇴교회 소재지가 대도시보다는 그 외 중소도시나 지방도시에서 복지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에서는 은퇴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많은 복지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은퇴교회의 복지조건과 거취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교회의 복지조건이 주택공급과 생활비지원, 기타지원인 경우보다는 설교 및 사회봉사인 경우가 더 복지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취형태에서는 농촌개인주택이 기타인 경우보다 더 높은 복지욕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는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은퇴목회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에 따른 복지욕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퇴목회자의 복지증진방안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원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목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총회나 노회에서 목회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정년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둘째, 은퇴목회자들의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은퇴목회자들을 관리하는 총회나 노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목회자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들로써 정부차원에서 또 다른 경제적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은퇴목회자들이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총회연금재단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차원의 목회자 전문병원이나 지정병원을 만들어 목회자의 의료복지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넷째, 은퇴목회자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등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나 총회에서는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하는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은퇴목회자나 그들의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민정,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상주, 「노인복지의 체계적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5.
-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노동」, 이우출판사, 1985.
- “담임목사 은퇴 및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성결」, 제304호, 2000. 12.
-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노동」, 이우출판사, 1985.
-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7.
- 박재간,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1995.
- 박종일,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예장통합 충청, 충북노회 은퇴목회자 및 공주원로원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태현, 이인수, 「실버산업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6.
-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84.
- 양애련, “노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에 관한 실증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유창숙,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심리상태와 은퇴 후 계획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익산시산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광규, “정년자의 생활복지”, 「사업사회와 정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 이승아,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종희,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형규, 「한국교회의 허와 실」, 서울: 쿰란출판사, 1992.
-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4.
-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예풍출판사, 1991.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정경아,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재학, “한국 기독교 은퇴 교역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각 교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전군명, “은퇴목사 노후생활보장”, 「기독교공보」, 1997.
- 지원경, 조병은,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1.
- 총회연금재단, www.pension.or.kr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최순남, 「현대노인 복지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 20권 2호(통권 33호), 2000.

국외문헌

Cumming, E, Henry, W.,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 1961.

George, L. K., & Maddox, G. L., "Subjective Adap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2, 1977, pp. 456-462.

Larson, R., "Thirty of Research of the Subject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978.

Lemon, B. W, Bengstone, V. L, & Peterson, J. A., "A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 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1972, pp. 515-521.

Taylor, C., *Developmental Conceptions and the Retirement Process*, in F.M. Carp(ed), *Retire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Inc., 1992.

질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한국 목회자의 은퇴 후 복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지는 연구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귀중한 연구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오니 한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이 교 선

▣ 다음은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 ① 65-70세 ② 71-75세 ③ 76-80세 ④ 81-85세 ⑤ 86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전문대졸업 ⑤ 대학교졸업 ⑥ 대학원이상

4. 귀하의 은퇴 전까지의 목회경력(목회안수 후 목회경력)? ()

- ① 20년 이하 ② 21년 - 30년
③ 31년 - 40년 ④ 41년 이상

5. 귀하가 은퇴하신 교회가 소재하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 읍, 면 ④ 농어촌

6. 은퇴당시 귀하의 직분은? ()

- ① 목사 ② 전도사

7.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① 원로목사 ② 공로목사 ③ 일반은퇴목사 ④ 기타(전도사)

8. 귀하의 은퇴당시 연령은? ()

- ① 60세 이하 ② 61-65세 ③ 66-70세 ④ 71세 이상

※ 다음은 귀하의 은퇴 후 생활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귀하가 은퇴 후 생계대책을 마련하셨다면 주로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

- ① 총회연금 ② 일반적금이나 보험 ③ 교회에서의 은급 적금
④ 전혀 없다 ⑤ 기타 (_____)

2. 교회에서 은퇴 후에 은퇴한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

- ① 주택공급 ② 생활비 지원 ③ 설교 및 사회봉사
④ 무관심하다 ⑤ 기타 (_____)

3. 귀하는 현재 은퇴 후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계속 교회나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② 시설이나 집에서 쉬고 있다
③ 여행 및 취미생활 ④ 자서전 및 회고록 집필
⑤ 자원봉사 ⑥ 기타 (_____)

4. 귀하의 경우 은퇴 후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 ① 경제문제 ② 예배처소문제 ③ 주거문제 ④ 여가활용
⑤ 건강문제 ⑥ 기타 (_____)

5. 귀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은퇴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60세 ② 65세 ③ 70세 ④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6. 은퇴 목회자를 위한 총회나 노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십니까? ()

- ① 여행 ② 자원봉사 ③ 건강관리 ④ 신학관련 재교육
⑤ 기타 (_____)

① 총회에서 운영하는 원로원 ② 일반 유료 양로원
③ 기도원이거나 수련원 ④ 아파트나 연립 ⑤ 농촌개인주택
⑥ 도시개인주택 ⑦ 기타 ()

① 총회연금 ② 은퇴교회의 후원 ③ 노회의 지원
④ 자녀들이 보내준다 ⑤ 기타 ()

① 주택관리 및 주식비 ② 병원비 ③ 현금 ④ 교통비
⑤ 도서비 ⑥ 기타 ()

①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② 그들 개인의 문제라 생각한다 ③ 관심 없다
④ 은퇴한 교회에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⑤ 기타 ()

① 은퇴한 교회에 출석한다 ② 마땅히 출석할 교회가 없다
③ 여기저기 다니면서 출석한다 ④ 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
⑤ 기타 ()

※ 다음은 귀하의 은퇴 후 복지욕구 및 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은퇴 전에 은퇴 후 대책을 마련하였다					
2	은퇴 후에도 교회나 사회에 봉사하기를 원한다					
3	은퇴목회자를 위한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4	총회에서 운영하는 은퇴 목회자를 위한 원로원에 들어가고 싶다					
5	현재 은퇴 목회자에 대한 총회나 노회의 대우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은퇴 목회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기구가 총회나 노회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7	은퇴 후에 일반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 가본 적이 있다					
8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한다					
9	은퇴 후에 자녀와의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10	은퇴 후 생활비나 용돈에 만족한다					

*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Retired Pastors' Social-Welfare

Lee, Kyo Su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etired pastors'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and thereby, provide for some basic data useful to development of the programs meeting churches' concerns and retired pastors' needs.

For this purpose, retired pastors were survey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of their welfare need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living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retired pastors were suffering much in terms of their welfare.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poor pension system, their basic living requirements such as clothing, meals and housing were not met appropriately.

Second, most of the pastors surveyed wanted to have their retirement age extended, while desiring to have their health problems solved.

Third, retired pastors wanted to participate in diverse volunteer services and similar programs, but any measure to meet their needs had yet to be arrang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measures for retired pastors' welfare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current retirement system for the pastors in consideration of their job characteristics so that they can be engaged in the pastoral services at general assembly or presbytery.

Second, it is most essential to reform the pension system in order to relieve the retired pastors of their financial problems. To this end, not only the general assembly or the presbytery which manage them but also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arrange a drastic supporting measure in recognition of their important services for the society.

Third, the general assembly pension foundation is obliged to arrange a measure to allow the retired pastors to be checked periodically for their health conditions. Moreover, the general assembly should designate some hospitals for the retired pastors to enhance their health welfare.

Fourth, in order to solve retired pastors' welfare problems, government, community and family members combine their effort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o them, while church or general assembly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subsidizing their living cost and developing welfare programs for them or their family members.